

구겨진봄

주소 없는 봄

열두 통의 편지. 주소는 없다. 스물여덟 분.

주소를 쓰지 못한 편지들이 모여 만든 열두 개의 봄. 어머니, 첫사랑, 친구, 할머니, 아버지, 시장 골목, 겨울 밥상, 보청기, 달동네, 야간열차까지 사라진 이름들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발매일	형식	재생 시간	언어
2026-07-17	Digital / 12 · 한국어	28:44	한국어

앨범

구겨진봄은 가까운 목소리와 마른 방 안의 공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을 중심에 둡니다. 이 앨범에서 편지는 부쳐지지 않지만, 그 구겨진 종이가 곧 노래가 됩니다.

각 트랙은 하나의 사물과 하나의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장독, 역 벤치, 나무 그림자, 보청기, 빈 좌석처럼 말하지 않는 것들이 기억을 대신합니다.

고향 역

포커스 트랙 · 05 · 2:23

멈춘 시계와 식어 가는 커피가 있는 고향 역에서, 기다림은 주인 없는 편지가 됩니다.

[Spotify에서 듣기](#) [가사 + 한국어 읽기 번역](#)

편집자용

프레스 페이지	구겨진봄.com/press/
앨범	Spotify
연락처	Björn Lundberg contact@구겨진봄.com
레이블	Lundberg Selection AB

키트 구성

한국어 보도자료와 소개
전체 트랙리스트와 링크
1600 × 1600 앨범 커버
1600 × 1600 목록 이미지
검토·방송용 오디오는 요청 시 제공

짧은 소개

구겨진봄은 한국어의 일상적인 친밀감과 거친 숨을 가까이 두는 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주소 없는 봄은 보내지 못한 말, 오래 남은 냄새, 손의 감각, 사라진 동네를 통해 관계의 잔향을 듣습니다.

구겨진봄은 Lundberg Selection AB가 개발한 한국어 가사 스튜디오 아티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음악과 보컬 퍼포먼스는 사람이 방향을 정한 작사·제작 과정 안에서 Suno로 생성되었습니다. Lundberg Selection AB는 글쓰기 방향, 선별, 편집, 곡 순서와 발매 결정을 맡았습니다. 열두 개의 가사 번역은 AI 보조 편집용 읽기 버전이며, 프레스 자료는 언어별로 따로 편집되었습니다. 제공 이미지는 설명용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